

# 저작권과 출처 표시는 무엇이 다를까?

똑똑 · 에디터 가온 · 발행 2026.09.30

출처 표시는 누구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출처 표시는 누구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모든 자료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화도 피합니다.

## 쉬운 설명

출처 표시는 누구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사실 자체를 참고해 자기 말로 설명하는 것과 사진·글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 핵심

- 출처 표시는 누구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 사실 자체를 참고해 자기 말로 설명하는 것과 사진·글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 모든 자료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화도 피합니다.

## 핵심 질문 · 대상과 범위부터 읽기

출처 표시는 누구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저작권상 이용 허락이나 법이 정한 이용 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는 일에는 복제·게시·배포 등 여러 행위가 섞입니다. 출처를 적는 것은 독자가 누구의 표현인지 찾게 하지만 그 행위가 허용되는 조건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 공개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개념 구분 · 같아 보이는 말을 나누기

사실 자체를 참고해 자기 말로 설명하는 것과 사진·글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용도 목적과 범위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 내용을 자기 말로 두 문장 요약한 뒤 링크를 다는 것과 기사 사진을 통째로 내려받아 학급 누리집의 배경으로 쓰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학습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공개 게시의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사례 · 가상의 장면에서 판단하기

학급 신문이 작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이름과 링크를 적었다고 합니다. 표시를 했어도 사진을 공개 배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과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을 살펴야 합니다. 인용문이 내 글을 돕는지, 내 글의 대부분을 대신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명시 방식과 법정 예외는 해당 조항을 확인합니다.

## 비교표 · 이 글의 세 가지 판단 기준

| 확인 항목 | 본문에서 확인한 것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핵심 범위 | 출처 표시는 누구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 사실 자체를 참고해 자기 말로 설명하는 것과 사진·글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
| 가상 사례 | 학급 신문이 작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이름과 링크를 적었다고 합니다.  | 모든 자료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화도 피합니다.                         |
| 후속 확인 | 사용하려는 부분·목적·게시 범위를 적고 원문 페이지의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법적 결론이 필요한 사례는 현재 법령과 권리자의 조건을 대조합니다.                        |

본문 설명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만든 표입니다. 기관 원문의 도표나 실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 한 단계 더 · 조건을 바꾸면 답도 달라집니다

실제 자료 카드에는 제목·작성자·원문 주소·접속일·인용 위치·라이선스 표시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허락 조건을 찾지 못한 이미지는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이용 조건이 명확한 자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결론이 필요한 사례는 현재 법령과 권리자의 조건을 대조합니다. 모든 자료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화도 피합니다. 보호 대상인지, 공개 라이선스가 있는지, 허용되는 인용인지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 깊이 읽기 · 다른 조건으로 시험하기

글의 한 문장을 인용할 때도 남의 문장이 내 글의 논지를 대신하지 않도록 내 분석을 충분히 써야 합니다. 인용문 앞에는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뒤에는 그 문장이 내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출처 표시는 이 논리적 연결까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공개 라이선스가 있는 자료도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저자 표시가 필요한지, 수정이 허용되는지, 같은 조건으로 공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의 “무료 이미지”라는 설명보다 원문 제공자의 라이선스 페이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 직접 확인 · 원문과 사례에 적용하기

사용하려는 부분·목적·게시 범위를 적고 원문 페이지의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학교 안 발표와 웹 공개를 같은 이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표시는 출처를 밝히지만 복제·공중송신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권리자의 허락·법상 예외 중 어떤 근거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생각해 보기

사진 아래 작가 이름과 링크를 적었으니 학급 웹사이트에 게시해도 된다는 말의 빈칸은?

---

---

---

---

---

---

## 확인 설명

표시는 출처를 밝히지만 복제·공중송신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권리자의 허락·법상 예외 중 어떤 근거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출처 표시는 무엇이 다를까?

출처 표시는 누구의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저작권상 이용 허락이나 법이 정한 이용 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사실 자체를 참고해 자기 말로 설명하는 것과 사진·글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용도 목적과 범위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사진 아래 작가 이름과 링크를 적었으니 학급 웹사이트에 게시해도 된다는 말의 빈칸은?

표시는 출처를 밝히지만 복제·공중송신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권리자의 허락·법상 예외 중 어떤 근거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적으면 사진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나요?

모든 자료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화도 피합니다. 보호 대상인지, 공개 라이선스가 있는지, 허용되는 인용인지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부분·목적·게시 범위를 적고 원문 페이지의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학교 안 발표와 웹 공개를 같은 이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원문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인용과 저작물 이용의 법적 구분을 확인할 원문; 본문의 가상 수치나 학교 사례를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7조 출처 명시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659459>: 현행 출처 명시 조문 원문; 본문의 가상 수치나 학교 사례를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copyright-credit-and-permission>